

CEO Report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조영현·최원

09_호
2023.09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금융 환경에서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2명의 보험회사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함(응답률 90%)

보험회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수(65.8%)의 CEO는 2024년 평균 장기(국채 10년) 금리가 최근보다 하락한 3.0~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들은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2024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1%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한 CEO도 34.2%에 이룸.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다수 보험회사가 앞으로도 종신보험, 건강보험, 장기인보험 등 CSM이 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답함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함. CEO들은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모집 질서 확립, 신사업 확대 순으로 선택함

자산운용의 경우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해외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유동성 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 주류임. 한편, 과거에 비해 신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함. 과반수의 회사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계제도 전환 이후 보험산업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에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I

설문조사 배경

-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회계제도 변화,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긴축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유가 상승, 제조업 부진,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시장 침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제환경임
- 이에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4회차인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2명의 보험회사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함 (응답률 90%)
 - 경제환경 및 경영지표 전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주로 향후 경기예상 및 장기금리 전망과 보험회사의 수익성 예상과 건전성 관리 수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 또한, 영업경쟁 수준, 대응과제, 자산운용 및 상품 전략, 우선 사업전략, 해외진출 견해 등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현재 보험산업의 평가와 경영전략 계획을 살펴봄
 - 대부분 문항은 척도형·단답형 문항이며, 순위형 문항은 순위별 가중치 점수¹⁾를 부여한 후 단답형 문항과 동일하게 분석함
- 이번 설문조사가 보험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함

1) 1순위는 0.5점, 2순위는 0.3점, 3순위는 0.2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함

II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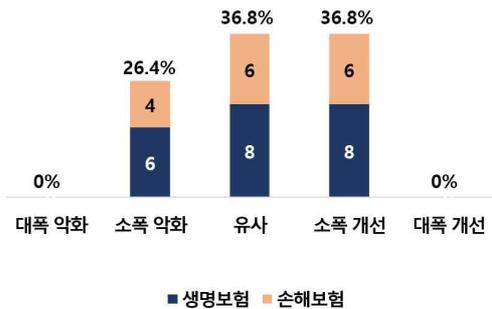
1. 경제환경 전망

○ 보험회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 평균 장기(국채 10년) 금리는 다수(65.8%)의 CEO가 최근보다 하락한 3.0~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의 비중이 모두 36.8%로 동일하였으며, 소폭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CEO의 비중은 26.4%임
- 2024년 장기 금리가 최근 수준(3.5~3.9%)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31.6%였으며, 한 명의 CEO만이 소폭 상승(4.0~4.4%)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II-1〉 2024년 경기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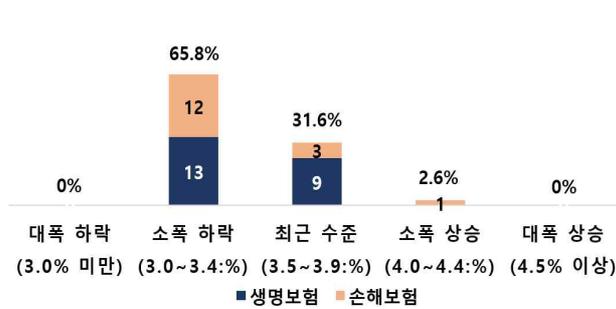
(단위: 명)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그림 II-2〉 2024년 장기(국채 10년) 금리에 대한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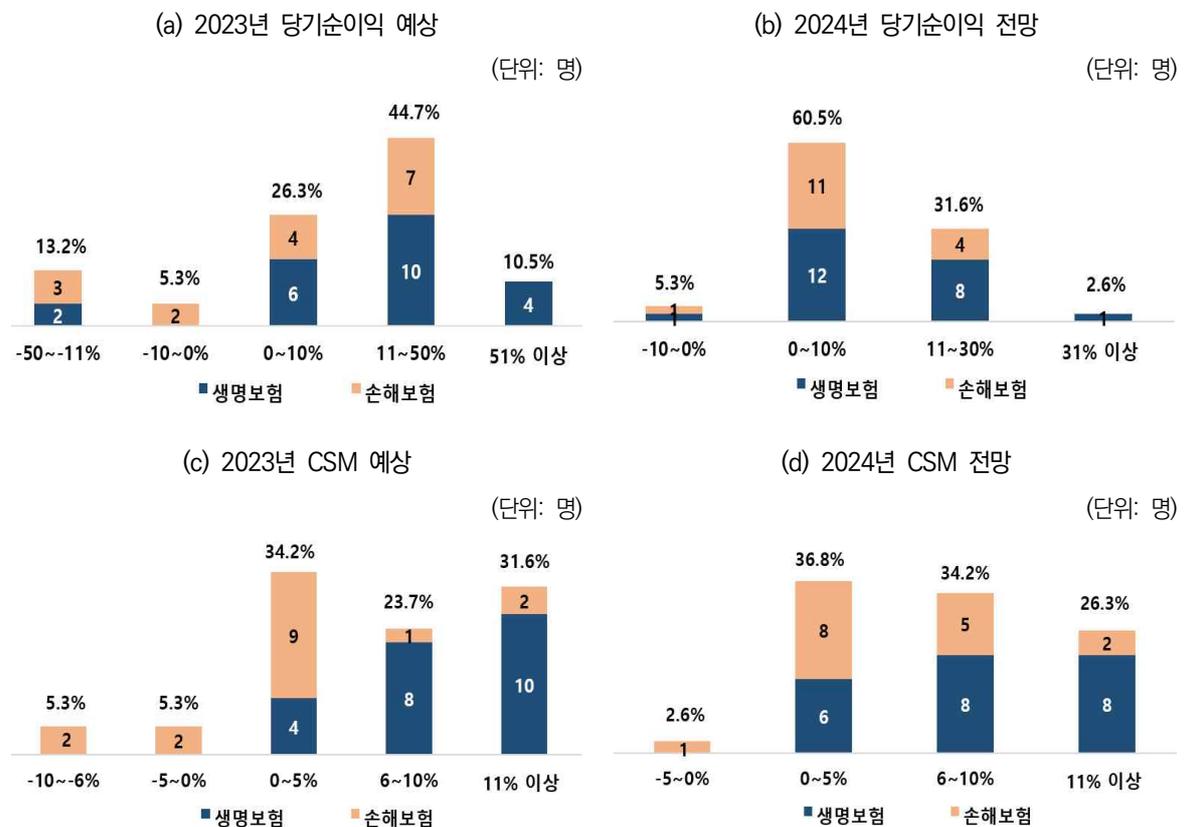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2. 경영지표 전망

○ 대부분의 CEO들은 2024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1%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한 CEO도 34.2%에 이릅니다

- 81.5%의 CEO가 2023년 자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 증가는 주로 회계제도 전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2024년에도 대부분(94.7%)의 CEO가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모두 자사의 CSM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2023년과 2024년에 11% 이상의 CSM 성장률을 전망한 CEO 비중은 각각 31.6%, 26.3%임

〈그림 II-3〉 수익성에 대한 기대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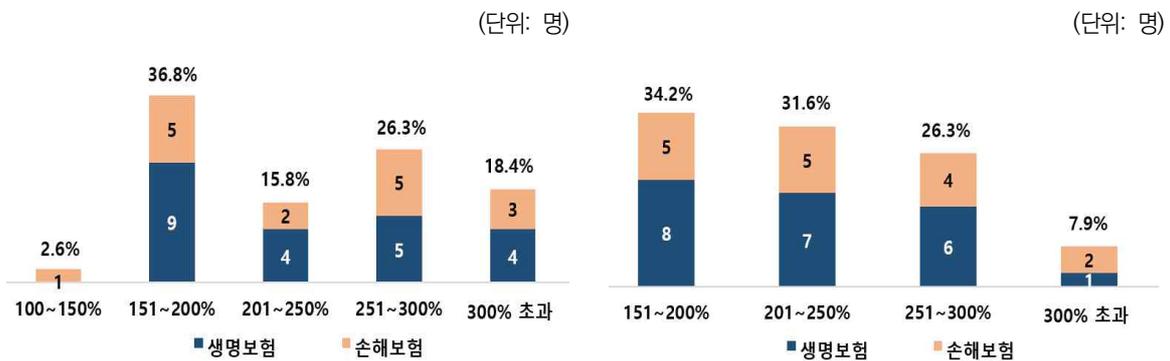
○ 2024년 65.8%의 보험회사는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나머지 보험회사는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251%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임

- 2023년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한 회사를 제외하고 모두 15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2024년에는 응답자 모두 자사의 K-ICS 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2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K-ICS 비율을 관리할 계획인 회사도 34.2%에 이룸
 - K-ICS 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

〈그림 II-4〉 K-ICS 비율 예상 및 관리 수준

(a) 2023년 K-ICS 비율(경과조치 후) 예상

(b) 2024년 K-ICS 비율(경과조치 후) 관리 수준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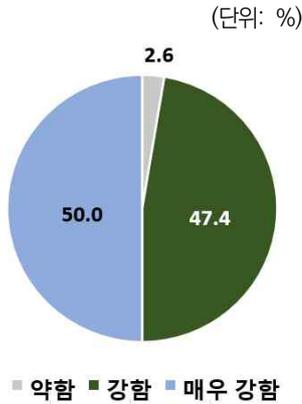
3. 보험산업 평가

○ 대다수(97.4%)의 CEO는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 수준이 강하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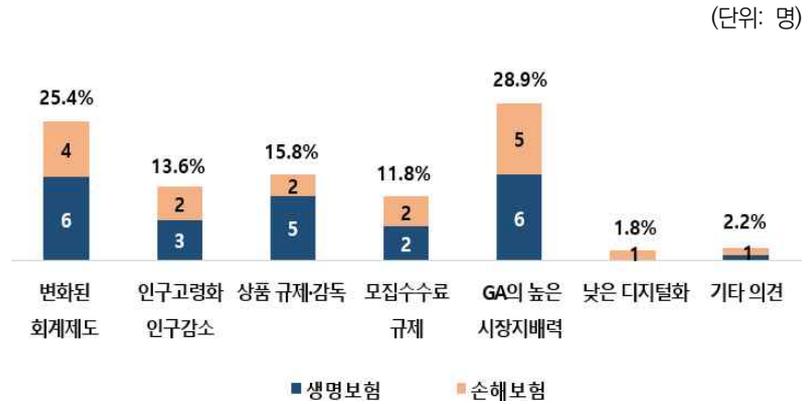
- 영업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GA의 높은 시장지배력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변화된 회계제도라는 응답이 25.4%였음
- 많은 CEO들이 GA의 확대,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한 영업경쟁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5〉 보험시장 영업경쟁 환경 평가

(a) 영업경쟁 수준 평가



(b) 영업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순위형)



주: 우측의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 CEO들은 2024년에 도입될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험판매에 대폭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다수의 CEO는 일정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보험판매가 소폭 혹은 중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68.4%를 차지함
- 판매 확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에 집중²⁾되었는데, 이는 생명보험 회사의 주력 상품은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으로³⁾ 보임

〈그림 II-6〉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판매 예상



주: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2) 12명 응답자 가운데 10명이 생명보험회사 CEO임

3)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됨

○ CEO들은 보험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꼽았음 (26.1%)

- 다음으로 보험모집 질서 확립(15.8%)과 신사업 확대(13.5%)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CEO들은 IFRS17의 비교가능성 제고(9.9%)와 디지털 전환(9.0%)도 산업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II-7〉 보험산업의 해결 과제(순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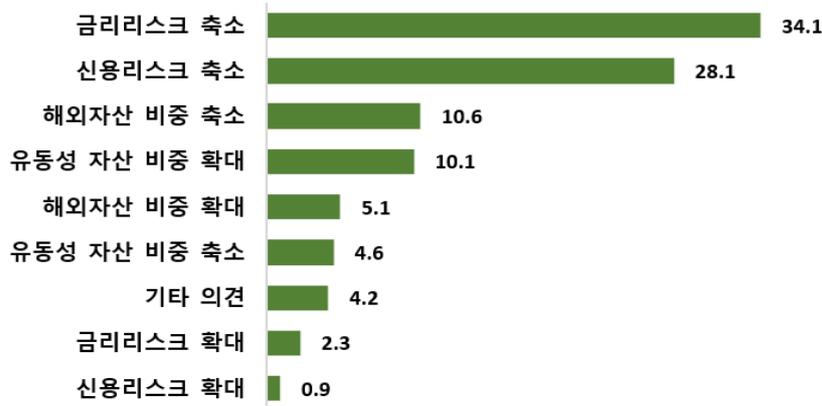
4. 경영전략 계획

○ 자산운용의 경우 2024년에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해외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유동성 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보수적인 전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임

- 금리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용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28.1%를 차지함
- 해외자산의 경우 비중 축소(10.6%)가 비중 확대(5.1%)보다 많았으며, 유동성 자산의 경우 비중 확대(10.1%)가 비중 축소(4.6%)보다 많았음
- 대다수 회사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금융 환경에서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8〉 2024년 자산운용 중점 전략(순위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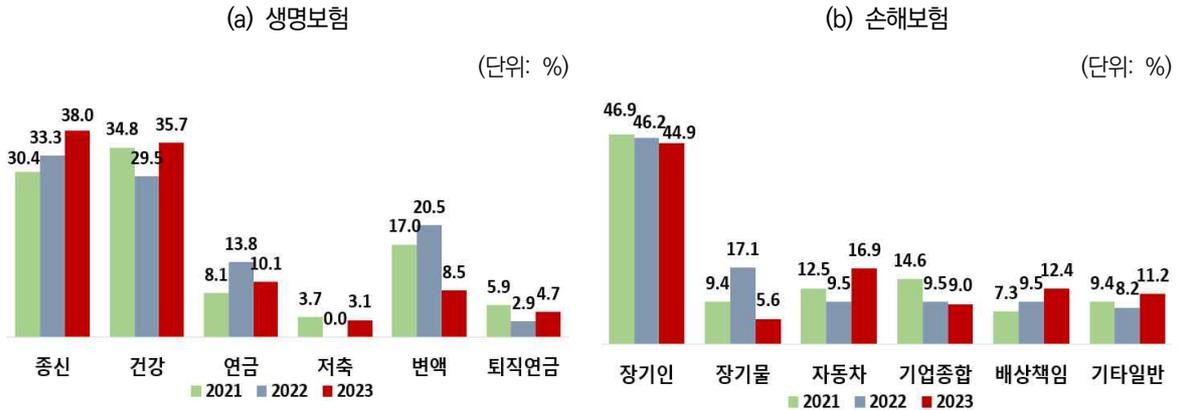
○ 향후 1~2년간 주력 상품전략을 묻는 질문에 생명보험회사 CEO들은 주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이라고 응답함

-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강화 기조가 확고해지면서 종신보험(38.0%)과 건강보험(35.7%)을 선택한 비중이 과거에 비해 확대됨
- 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혁 계획 등으로 사적연금 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금보험(10.1%)과 퇴직연금(4.7%)을 주력 상품으로 선택한 회사의 비중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임
- 변액보험(8.5%)은 주력 상품으로의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임

○ 손해보험회사는 주력 상품으로 과거와 같이 장기인보험(44.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주목할 점은 자동차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임

- 장기인보험 선택 비중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물보험의 선택 비중은 5.6%로 최근 3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을 선택한 비중이 16.9%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임
- 배상책임보험과 기타 일반보험을 주력으로 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각각 12.4%, 11.2%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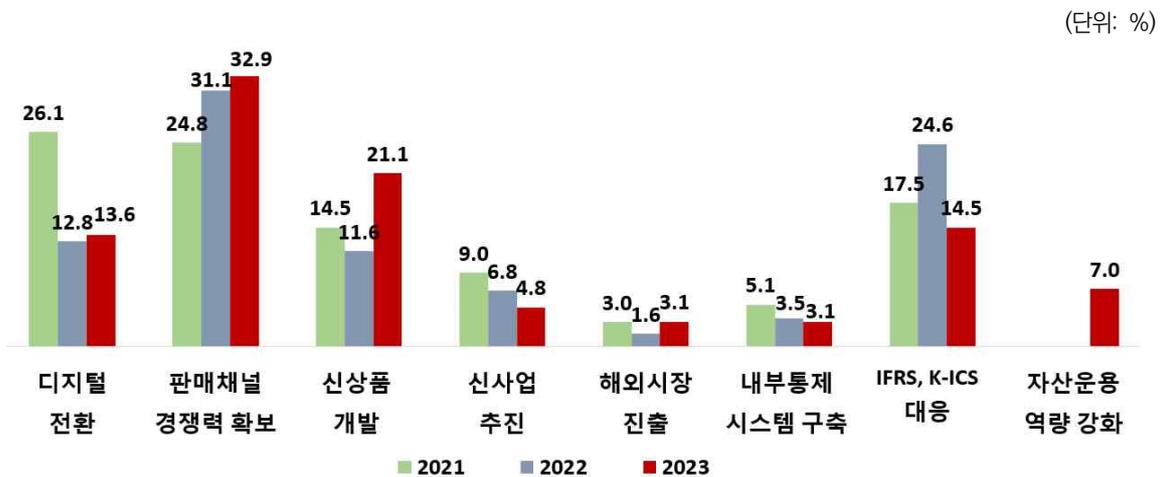
〈그림 II-9〉 향후 1~2년간 주력 상품전략(순위형)



○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전략에 대한 질문에 CEO들은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32.9%)와 신상품 개발(21.1%)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이러한 결과는 회계제도 전환 이후 CSM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과거에 비해 신회계제도 대응(14.5%), 신사업 추진(4.8%),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3.1%)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산운용 역량 강화(7.0%)에도 CEO의 관심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계제도 변화로 인해 당기순이익 변동에 투자이익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10〉 최근 우선순위 전략(순위형)



○ 중점을 두고 있는 신사업영역으로는 이전 설문결과와 유사하게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와 간병·요양 서비스가 중점 분야라고 응답한 보험회사 CEO는 각각 31.0%와 23.9%로 2022년과 비슷했음
- 소액단기보험(13.2%)과 종합금융서비스(15.2%)에 대한 관심은 2022년과 유사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8.6%)에 대한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신사업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모빌리티, 펫, 기업보험 차별화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11〉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 영역(순위형)

(단위: %)



○ 해외사업 확대를 고려하는 회사(54.1%)가 그렇지 않은 회사(45.9%)에 비하여 많았으며, 해외사업 확대를 고려하는 국가로는 베트남(40.4%)이 가장 많이 선택됨

- 베트남 다음으로 고려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27.7%), 인도(10.6%)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회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부 보험회사는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중국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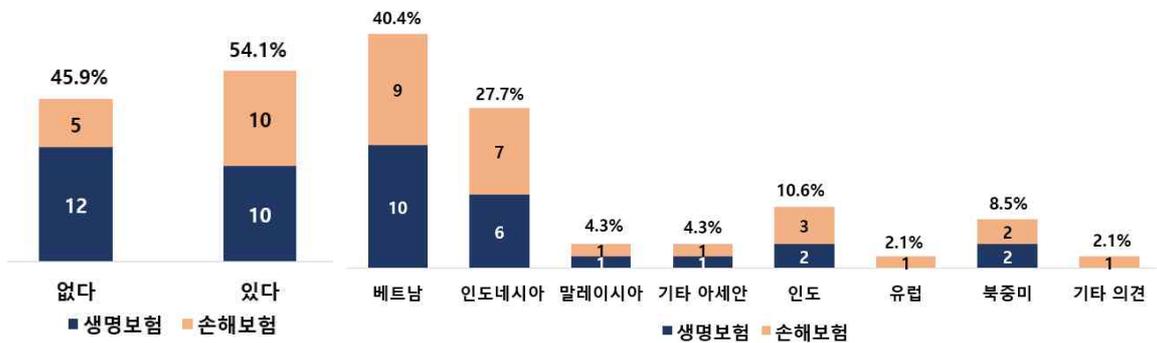
〈그림 II-12〉 해외사업 확대 계획(복수응답)

(a) 해외사업 계획

(b) 해외사업 확대 시 고려하는 국가나 지역

(단위: 명)

(단위: 명)



주: 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

III

요약 및 시사점

- 대다수 보험회사 CEO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러한 전망의 근거에는 충분한 신계약 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과 2024년 모두 자사의 CSM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2023년과 2024년에 11% 이상의 CSM 성장률을 전망한 CEO 비중도 각각 31.6%, 26.3%임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향후에도 종신보험, 건강보험, 장기인보험 등 CSM이 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답함
- 한편,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꼽음
 - CEO들은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함
 - 치열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과거에 비해 신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과반수의 회사가 해외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사업 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았음
 - 해외사업 확대를 고려하는 국가는 베트남(40.4%), 인도네시아(27.7%), 인도(10.6%) 순이며, 일부 보험회사는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중국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음
- 회계제도 전환 이후 보험산업의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에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한 보험산업 균형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보유계약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곧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장래이익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지양해야 함
 -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할 시기로 보임
 - 아울러 보험회사는 전통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보장서비스 및 사업 발굴, 해외사업 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경제환경 변화

1.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에 비해 어떠한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폭 악화	소폭 악화	유사	소폭 개선	대폭 개선

2. 2024년 장기 금리(국채 10년)가 평균적으로 어떤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대폭 하락(3.0% 미만)	소폭 하락(3.0~3.4%)	최근 수준(3.5~3.9%)	소폭 상승(4.0~4.4%)	대폭 상승(4.5% 이상)

나. 경영지표 변화

3. 2023년 귀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51% 이하	-50 ~ -11 %	-10 ~ 0%	0 ~ 10%	11 ~ 50%	51% 이상

3-1. 2024년 귀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31% 이하	-30 ~ -11 %	-10 ~ 0%	0 ~ 10%	11 ~ 30%	31% 이상

4. 2023년말 귀사의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어떤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100 ~ 150%	151 ~ 200%	201 ~ 250%	251 ~ 300%	300% 초과

4-1. 귀사는 2024년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을 어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100 ~ 150%	151 ~ 200%	201 ~ 250%	251 ~ 300%	300% 초과

5. 2023년 귀사의 CSM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1% 이하	-10 ~ -6%	-5 ~ 0%	0 ~ 5%	6 ~ 10%	11% 이상

5-1. 2024년 귀사의 CSM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11% 이하	-10 ~ -6%	-5 ~ 0%	0 ~ 5%	6 ~ 10%	11% 이상

다. 보험산업 변화

6.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우 약함	약함	적정함	강함	매우 강함

6-1. 현재의 영업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변화된 회계제도 ②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③ 경영진 보상체계 ④ 상품 규제·감독
 ⑤ 모집수수료 규제 ⑥ GA의 높은 시장지배력 ⑦ 낮은 디지털화 ⑧ 기타 ()

6-2. 모집수수료 규제(1200% 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할 필요	소폭 완화 필요	현재가 적당	소폭 강화 필요	대폭 강화 필요

6-3. 2024년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판매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미미한 수준	소폭 증가	중폭 증가	대폭 증가

7.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소비자 신뢰도 제고 ② 보험사기 근절 ③ 디지털 전환 ④ 노후소득 보장 확대
- ⑤ 해외진출 ⑥ 신사업 확대 ⑦ 보험모집 질서 확립 ⑧ IFRS17의 비교가능성 제고
- ⑨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⑩ ESG를 고려한 투자 및 보험인수
- ⑪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위한 경영진 보상체계 및 임기 개선
- ⑫ 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공·사 파트너십 강화 ⑬ 기타 ()

라. 경영전략 변화

8. 자산운용 측면에서 귀사가 2024년에 중점을 둘 전략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신용리스크 축소 ② 신용리스크 확대 ③ 금리리스크 축소
- ④ 금리리스크 확대 ⑤ 해외자산 비중 축소 ⑥ 해외자산 비중 확대
- ⑦ 유동성 자산 비중 축소 ⑧ 유동성 자산 비중 확대 ⑨ 기타 ()

9. 향후 1~2년간 귀사의 주력 상품전략은 무엇입니까?

A) 생명보험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종신보험 ② 건강보험 ③ 연금보험 ④ 저축보험 ⑤ 변액보험 ⑥ 퇴직연금

B) 손해보험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장기인보험 ② 장기물보험 ③ 자동차 ④ 기업종합 ⑤ 배상책임 ⑥ 기타일반

*주: 1) 기업의 단체상해보험은 기업종합에 포함
 2) 기타일반은 화재, 해상, 기술, 비용보험 등

10. 최근 귀사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디지털 전환 ②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③ 신상품 개발
 ④ 신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추진 ⑤ 해외시장 진출
 ⑥ 소비자 보호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⑦ IFRS, K-ICS 대응
 ⑧ 자산운용 역량 강화 ⑨ ESG 경영 강화 ⑩ 기타 ()

11. 신사업영역 중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건강관리서비스 ② 간병·요양서비스 ③ 소액단기보험 ④ 종합 금융서비스
 ⑤ 신탁업 ⑥ 마이데이터 사업 ⑦ 기타 ()

12. 귀사는 해외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	있다

12-1. 만약 해외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한다면, 어느 국가를 고려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베트남 ② 인도네시아 ③ 말레이시아 ④ 기타 아세안 ()
- ⑤ 인도 ⑥ 남미 () ⑦ 유럽 () ⑧ 북중미 ()
- ⑨ 기타 ()

저자약력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최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CEO Report 2023-09호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